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⑩ 경기도 김포 금정사 소나무

‘늘 푸름’ 속에 담긴 삶과 죽음 설법

조선 16대 왕 인조의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 능침이 있는 김포 장릉을 답사한 뒤 다시 입구에서 ‘아름다운 김포 문화유산’ 안내도를 본다.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시지정 향토유적을 타고 내려오다 마지막 전통사찰 목록에서 눈이 번쩍인다. 그 가운데 가장 가까운 금정사로 발길을 향한다.

안전한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걷는 게 불안해 공원묘지로 들어선다. 길가에서는 가뭇없이 사라져 버린 보랏빛 제비꽃들이 겨울을 나느라 이 빠진 듯한 봉분 잔디 사이사이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다. 하지만 공장과 식당들이 늘어서 있는 산 자들의 세계에 들어서는 순간 어디쯤 금정사가 있을지 분간이 안 돼 길을 묻는데, 조금만 더 직진하면 절을 알리는 큰 대문이 있다고 한다. 가서 보니 중앙승가대학교라는 현판에 난감해 하다가 옆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오래 자란 듯한 느티나무 넘어 흙담에 기대어 있는 금정사 표시가 위로를 주는 듯 다가온다.

금정사는 신라 진흥왕 때 창건되었으며, 당시에는 고상사라고 했단다. 인조가 장릉을 조성하면서 인근에 있던 고상사를 지금의 위치로 옮기면서 봉릉사(奉陵寺)로 이름을 바꾸어 원찰로 삼았다는데 이후 기록이 거의 없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 성화대사가 대한제국 말기 김포를 관장하던 현청을 일제가 강제로 헐어 낼 때 출입문 중 목재와 주춧돌 등을 구입하여 사찰을 크게 중수하였고, 그 뒤 한국전쟁으로 불타 버린 사찰을 1974년 주지 정념과 고근이 대웅전과 범종각을 지었단다. 그리고 절의 뒷산이 금정산이고, 맛이 좋은 샘물이 솟아나 ‘하늘우물’이라는 뜻의 금정사(金井寺)로 개명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단다.

금정사 안으로 들어서는데 신발에서 흙냄새가 올라온다. 비포장길이다. 깊은 산에 있는 절도 아닌데 하는 의아심보다 덜컥 반가움이 앞선다. 주변 풍경이 궁금해 살펴보니 녹색의 잎들과 확연히 다른 푸른색의 플라스틱 물바가지가 보이고, 그 위로 두 갈래로 갈라져 하늘로 오르고 있는 소나무가 멋들어진 운치를 준다.

식물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뿜어주는 피톤치드를 한껏 들이켜는 척하고 사부작사부작 곡선의 비탈길을 오르다 곁눈으로 들어온 건물을 보는데, 산철쭉 넘어 검은빛 기둥을 타고 가니 금정사라는 현판을 마주한다. 전체적으로 단청 하나 없는 모습에 혹 요사채인가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이윽고 왕릉 사찰이었다는 생각에 다다른다.



경기도 김포 금정사 소나무.

〈조선 왕릉의 사찰〉을 보면, “조선 전기 능침사는 불법을 수호하는 사찰인 동시에 유교식 사당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선왕 선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는 점에서 불교식 추모공간이었지만, 설립 명분이나 건물 형태에 있어서는 유교식 조상 숭배 시설의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글이 있다. 그러니까 조선의 통치이념은 유교였지만, 왕릉이라는 공간 구조를 살펴보면 유불선 동양의 핵심문화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관념이 능침사 건물 형태에까지 반영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실제로 요사채로 쓰이는 그 건물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니 멀리 산 아래에 단청을 하고 있는 맞배지붕의 작은 대웅전이 보이고, 그 앞 너른 마당을 지나 한 계단 내려오면 단청 없는 무루당이 사찰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것 같다. 아울러 대웅전 왼쪽으로 산을 타고 내려오는 곳에 있는 본원지 또한 단청이 없는데, 그 끝에 양반집에서나 볼 수 있는 누마루가 있다. 그래서 절에 온 건지, 유교학자 집에 온 건지 헷갈려, 경내를 쭉 지나 범종각 앞에 선다.

둔덕진 곳에서부터 나무를 살펴보니 유독 소나무들만 보이는 것 같다. 그 연유를 곰곰이 떠올리니 방금 전에 장릉에서 본 소나무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왕릉에 소나무를 심는 이유로 죽은 자가 사시사철 푸르게 살아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한 것이 있고, 소나무 송(松)자를 보면 공적(公的)인 것의 공(公)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살아 있는 모든 왕들이 사적인 정치를 하지 말고 공적인 정치를 하라는 선왕의 어명 같은 걸 늘 인지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나무에 담긴 상징을 잠시 망각시키는 게 봄철에 날리는 송화(松花)가루다. 이는 소나무의 수꽃이삭으로 노란빛 꽃가루인데, 누구는 이를 모아 다식을 만들어 입을 호강시키고, 누구는 알레르기 때문에 연신 기침을 해댄다. 그래서 호불호가 분명한 수꽃가루가 바람에 흩어지고 나면 새 가지가 목질화되면서 바늘잎을 만들어 갈 준비를 한다. 이 무렵 소나무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 연출된다. 바로 새 가지 끝에 봉긋 솟아오르고 있는 암꽃, 즉 밑씨 솔방울이 자주색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가 수분을 막기 위한 정교한 생장에 고개가 숙여진다.

조선 왕릉을 두고 죽은 자의 궁궐이라고 한다. 삶과 죽음을 분리시키지 않는 사유다. 소나무가 늘 푸른 것 같지만, 해마다 새 잎이 나고 묵은 잎이 떨어진다. 그래서 늘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금정사를 가득 품어주고 있는 소나무에서 그 깊은 뜻을 헤아려본다. 내 삶과 죽음을 굳이 구별하지 말라는 무언의 종소리처럼!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⑩ 박서영의 ‘마음이라는 표범 한 마리’

누구나 마음속에 ‘표범’ 하나가 산다

마음이라는 표범 한 마리/ 박서영

표범은 그와 나 사이의 일주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통과해 서로 만나곤 했다
야수성을 가진 마음이 직립으로 서 있다
왜 마음은 휘어지지 않는 것일까
납작하게 짓눌려지지 않는 것일까

온몸에 풍랑을 그린 짐승처럼 바람이 분다
허공에 바람의 무늬가 구불구불하게 새겨져 있다
낙동강 가의 모래 능선처럼
사하라 사막의 모래 능선처럼

마음은 왜 바싹 타서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펄떡이는 풀밭 위를 달려가는
마음이라는 짐승 한 마리
앉아 있는 마음이 달려 나가는 마음을 붙잡는다
내 몸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다

불길한 짐승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마음에 바람이 분다
표범의 등줄기가 꿈틀거린다
표범은 일테면 그와 나 사이의 일주문이다

언제부터 마음으로 둔갑해
내 몸에 들앉게 되었는지 그건 나도 모른다

– 박서영 시집, 〈붉은 태양이 거미를 문다〉, 천년의 시작, 2006

표범, 하니까, 먼저, 가수 조용필 씨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떠오른다. 좀 길지만, 시 감상을 돕기 위해서 전문을 인용해본다.(이 기회에 ‘킬리만자로의 표범’ 가사를 깊이 되새겨보는 것도 세상살이에 큰 힘이 될 것이란 생각도 해본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눈물 몇 방울씩 떨군다. 참고로 가사가 워낙 긴 탓에 조용필 씨 자신도 이 노래 가사를 외우는데 3~4년이 걸렸다고 한다. 참고 하나 더, 노래방에 가서는 절대로 부르지 말 것, 인기 다 떨어짐)

“(독백)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자고나면 위대해지고/ 자고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야망에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의 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랴/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 간/ 고흐란 사나이도 있었는데// (노래)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한 줄기 연기처럼 가뭇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을/ 아는 이 없으면 또 어떠리// (독백) 살아가는 일이 허전하고 등이 시릴 때/ 그것을 위안해줄 아무것도 없는 보잘 것 없는 세상을/ 그런 세상을 새삼스레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건/ 사랑 때문이라구?/ 사랑이 사람을 얼마나 고독하게 만드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지/ 사랑만큼 고독해진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지/ 너는 귀뚜라미를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귀뚜라미를 사랑한다/ 너는 라일락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라일락을 사랑한다/ 너는 밤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밤을 사랑 사랑한다/ 화려하면서도 쓸쓸하고/ 가득 찬 것 같으면서도 텅 비어 있는 내 청춘에 건배// (노래) 사랑이 외로운 건 운명을 걸기 때문이지/ 모든 것을 거니까 외로운 거야/ 사랑도 이상도 모두를 요구하는 것/ 모두를 건다는 건 외로운 거야/ 사랑이란 이별이 보이는 가슴 아픈 정열/ 정열의 마지막엔 무엇이 있나/ 모두를 잃어도 사랑은 후회 않는 것/ 그래야 사랑했다 할 수 있겠지// (독백) 아무리 깊은 밤일지라도/ 한 가닥 불빛으로 나는 남으리/ 메마르고 타버린 땅일 지라도/ 한 줄기 맑은 물소리로 나는 남으리/ 거센 폭풍우 초목을 휩쓸어도/ 꺾이지 않는 한 그루 나무 되리/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야// (노래) 구름인가 눈인가 저 높은 곳 킬리만자로/ 오늘도 나는 가리 배낭을 메고/ 산에서 만나는 고독과 악수하며/ 그대로 산이 된들 또 어떠리 라~ 라~ 라~”

자, 이제 박서영 시인의 ‘표범’과 가수 조용필 씨의 ‘표범’을 비교해보자. 먼저 표범은 두 개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첫째는 용맹, 왕, 군림, 위대함 등을 상징한다.

큰 꿈을 이룩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적극적인 사람을 뜻한다. 두 번째는 맹수, 거침, 사나움, 독불장군 등을 상징한다. 함부로 날뛰고 사납고 남을 포식의 대상으로 삼는 자만심을 뜻한다.

박서영 시인의 표범은 두 번째 상징을 갖고 있다. 조용필 씨의 표범은 첫 번째 상징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두 표범의 결론은 같다. ‘야성(野性)의 직립’으로 서서 ‘휘어지지’ 않고 ‘납작하게 짓눌려지지’ 않지만 끝내는 ‘마음에 (따스한) 바람’ 불고(이상 박서영 시인), 해발 1만9710피트(5895m)의 눈 덮인 킬리만자로에 살지만 ‘나도 귀뚜라미를 사랑하’고 ‘라일락과 밤을 사랑하’는(이상 가수 조용필) 부드럽고 포근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박서영 시인은 그것을 ‘그와 나 사이’에 있는 ‘일주문’을 통해, 조용필 씨는 킬리만자로라는 이상향〈聖者(성자)〉을 통해(물론 아열대 정글에 살고 있는 표범이 만년설로 뒤덮인 킬리만자로까지 올라갈 이유는 없겠지만) 가능으로 바꾸고 있다.

불교가 시(노래)를 만났을 때, 아니 시(노래)가 불교를 만났을 때만이 생겨날 수 있는 아름다운 설득이다. 박서영 시인과 가수 조용필 씨는 표범이라는 야성의 마음이 불교(일주문, 킬리만자로)를 만나 어떻게 순화되고 다듬어지는지를 고도의 상상력으로,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불교문학연구소장〉

